

# 목포시 원도심 상가지원 시책 실효성 논란

### 보조금 40억 투입 불구 임대료 덩달아 올라 상인 부담 그대로 점포 10곳 중 2곳 공실 침체 여전...시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목포시가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상가지원 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상점들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고 낙후된 상권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2006년 12월 시행)에 의거, 특화거리와 기존 도심 임대 상가 신규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상가지원 시책은 크게 임대료와 건물 수선보조금 등 두 가지다.

임대료는 월 임대료의 50%(최대 75만 원 한도) 선에서 2년간 지원되고, 건물수선 보조금은 수선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다.

이 시책으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 이후 2016년까지 424개 점포에 35억이 지원됐다. 지난해 27개 점포에 2억 7800만원, 올해 신규 12개 점포에 2억 5800만원 등 지금까지 총 40억 38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가 17억 7600만원, 임

대료는 22억 6200만원을 차지했다.

문제는 목포시가 원도심 상권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4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상인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빈 가게만 넘쳐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총 421개 점포 중 70개 점포가 비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도심 점포 10곳 중 2개 점포가 공실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데는 목포시가 원도심의 빈 가게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세입자에게 2년 동안 최대 1800만원(75만원×24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자 건물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도심 수문로의 한 건물 1층에서 수년 동안 옷 가게를 운영해 온 세입자는 최근 재계약을 포기했다. 이곳의 임대료가 당초 40만원이었으나 두 배 가까이 뛰어서다. 인근의 다른 건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예 건물주는 대 놓고 임대 구함 전단에 '월 임대료 목포시에서 50%지원'이라고 적어 놓은 곳도 있다.

이처럼 2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끊기고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가게마다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상가



목포시 원도심 수문로를 지나는 한 행인이 임대료가 나붙은 빈 점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목포=임영준 기자 lyc@

지원 사업이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건물주만 배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일방적인 임대료 지원보다는 건물주와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지원금을 주는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시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57)는 "상권이 뜨더라도 월세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장기간 계약을 맺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서울시 사례처럼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차북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

원은 "최근 조성된 '보혜양조 상가 청년점포' 사업처럼 관련 예산으로 목포시가 상대적으로 건물 가격이 낮은 건물을 매입해 청년창업가 등에게 임대해주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원도심 상가보조금 지원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청춘창업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을 비교·분석해 기존의 '임대료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법 변경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 기자 lyc@kwangju.co.kr

## 36년 된 목포시 공인 새로 만든다

### 한글 전서체→정자체로

일반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서류를 떼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다. 바로 직인이다. 이러한 직인은 목포시에 몇 개나 될까. 일반적으로 '목포시장인' 한 두 개 정도로 생각하지만 무려 500개가 된다.

현재 목포시에서 사용 중인 직인은 지난 1982년 제작된 것으로 36년이 경과했다.

16일 목포시는 40년 가까이 사용해 온 목포시장 직인을 비롯해 공인 전부를 시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고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글씨체로 변경하기

위해 목포시 공인 전부를 개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 개각은 현재의 '한글 전서체'를 '한글 정자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목포시장인' 크기도 기존 2.4cm에서 3.0cm(정방형)로 약간 커진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목포시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공인 전면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공인으로 변경해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내년 목포항 개발 예산 429억 조기집행

###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키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평정)의 2019년도 목포항 개발 예산이 429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2019년 목포항 개발 예산을 보면 우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설 계비 38억 원과 신 항에서 자동차 부두 17억(총사업비 472억), 신항만 대체 진입도로 7억(총사업비 337억), 북항 어선물장장 10억(총사업비 259억), 동명동 물양장 정비 4억(총사업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목포항과 흑산도항 개발을 위한 계속 사업비 188억원을 확보했다.

신항 배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배후단지 48억, 정박여건 개선을 위한 예·부선 부두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흑산도 항에 영해관리 지원기지 건설을 위한 개발사업비 23억원과 도서지역민의 편의와 안전한 어선접안 등을 위한 도선부잔교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항만 이용도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등 203억원도 마련했다. 목포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한 사전 준비를 실시해 서·남해권의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영산강 농업개발사업 예산 677억원 확보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최광섭)이 영산강Ⅲ·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예산을 당초 507억원에서 170억원이 증액된 677억원을 확보했다.

영산강Ⅲ·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전남 서남부지역인 해남, 무안, 신안, 함평, 영광 일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 등으로 지역 농업발전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중요 사업이다.

이번 예산 추가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 지역국회의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

과이다. 특히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추가예산(17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산강Ⅳ지구 예산 500억원 확보는 2001년 착공 이래 최대 예산(평균 237억원) 확보로 최근 농업SOC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최광섭 영산강사업단 단장은 "관련기관 협업 강화 및 꾸준한 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촌에서의 사회적 가치 역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사업 박차

### 43억 투입 생활인프라 구축·80가구 주택 정비 나서

목포시가 목포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역인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새뜰 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송도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게 핵심 골자다.

내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국비 33억, 도비 3억, 시비 7억)이 투입돼 안전·재해 방지 기반시설 구축, 생활 취약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 5개 분야에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목포시는 옹벽 정비공사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7월 시작된 마을안길 도로 개설(11억 2400만원) 등 2차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대대적인 주택정비 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송도마을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83호, 공·폐가 51호, 무허가 주택 44호, 슬레이트 지붕 47호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49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집수리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이달 현장조사와 함께 선정 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원 대상가구로 80호를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노후 집수리 4억 6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98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대 700만원, 일반 가구는 50%인 35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상수관로 불량과 노후화, 우·오수 유출, 도시가스 보급률 0%, 골목길 상습 결빙의 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 전체에 하수관로,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등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목포시가 다음달부터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목포시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구인 동명동 송도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주택정비 사업과 함께 14억을 투입해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송도마을 전경.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14억 2300만원)에 나선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등 14개소와 CCTV 5대 설치(1억 5000만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휴먼케어' 사업 일환으로 어망·어구 수선 기술을 습득해 주민소득으로 연계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소

식지 및 마을 이야기 책자 제작, 주민역량 강화 등 사회·경제적 재생 사업도 펼친다.

한편 송도마을은 내항과 국제여객선 터미널 사이에 있는 동명동 77계단 인근 암반 절개지 위에 위치한 도심 속 오지로, 현재 149세대 270명이 거주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암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